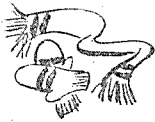


9할이 불필요한 투약을 하고 있다

항생제



정 희 영

의사 부터가 남용하는 실정
가정에선 90%가 무작정사용

도대체 항생제는 얼마나 남용되고 있을까? 의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도 뒤에 보면 불필요하였던 경우가 반수 이상이라는 것이 미국 종합병원의 경우이고 보면 의사부터가 항생제를 남용하고 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여도 이 정도이니 하물며 어설픈 상식으로 혹은 무작정 항생제를 즐기는 가정요법의 경우는 90% 이상은 불필요한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항생제가 효과 있는 감기는
50%에 불과하다

당신은 감기에 걸렸을때에 항생제를 먹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항생제의 효과가 있는 감기는 5%에 불과하다. 또 당신은 설사한다고 항생제를 먹지는 않는지? 그러나 대부분의 설사에는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도 당신은 빈 주머니를 털어서 계속 항생제를 쓰겠다고 하지는 않을것이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 미짜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항생제를 쓰면 여러가지 헤로운 일(부작용이라고 한다)이 생긴다는 것은 모르고 있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항생제를 사용하면 어떠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일까?

죽음을 부르는 수가 있다

첫째로는 죽음을 부르는 경우가 있다. 페니실린을 주사한 다음에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이까닭에 의사들은 페니실린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려하고 사용할 때에는 미리 시험하곤 한다. 이러한 무서운 부작용은 비단 페니실린 뿐만이 아니고 스트렙토마이신에도 있고 또 다른 항생제에서도 볼수있다. 코로람페니콜 (흔히 크로르마이신이라고 잘못 불리고 있다)을 먹고 재생불능성빈

특 집

혈이라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병에 걸리기도 하며 이밖에도 귀먹어리가 되는 것도 있고 신장염이나 간장염이 되는 것도 있고 부작용을 앓을 뉘자면 한이 없으며 이러한것은 항생제로 직접 생기는 부작용들이다.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수도

물째로 항생제를 써서 뜻하지않게 병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강티푸스에 걸렸을때에 초기에 크로람페니콜을 먹고 열이 떨어지면 다 난줄알고 뉘조리를 하지않다가 장이 뚫어져서 복막염이 되는 일이 종종 있다.

새로운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셋째로는 항생제를 써서 병을 일으킨 세균을 죽이는것은 좋지만 이때 몸안에 아무런 해도 없이 있던 다른 세균이 죽은 세균 대신 많아져서 새로운 병을 일으키는 수도 있다. 발에 여러가지 잡초가 있을때에 그 한가지를 뽑으면 당장은 그만큼 잡초가 줄어들지만 곧 다른 잡초가 자라서 이전과 같은 상태가 되고 이 잡초가 해로운 수가 있다는 것이다.

자기 몸 소중한 줄 알아야

그렇다고 이러한 부작용이 무서워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것은 아니며 A라는 질환에는 어떤 항생제가

유효하고 이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수 있다는 것을 짐작하면서 사용하여야 된 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쁜 세상에 자기 할일도 다하기에 어려운데 누가 이런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단 말인가?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은 감히 자동차의 핸들에 손을 뉘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한번 고장나면 부속품을 갈아 끼울수도 없는 소중한 자신의 몸을 또는 귀여운 자녀의 몸에 생긴 고장을 거리낌도 없이 다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이해할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법이 미비하여 항생제를 아무나 구할수는 있지만 자신을 위할줄 안다면 법이 개정되기에 앞서 의사의 지시없이 항생제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넓은 길이라고 차를 몰고 갈수있다고 생각하다가는 교통사고를 내는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필자=가톨릭의대 내과 교수>

◎ 기생충 박멸 표어

어린이 건강은

기생충 예방부터

—한국 기생충 박멸 협회—
